

나눔과 섬김의 기쁨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소식을 비롯한 국내외 뉴스.

아브라함의 선 (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건없는 순종과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육 간에 큰 축복을 받았다.

참된 효(孝)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과 참된 효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사랑의 빛으로 마음을 밝혀주신 주님

주님 은혜로 영육 간에 강건해진 몸과 체렌도르지 암라 침사와 폐결핵을 치료받은 정마리아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581호 2013년 5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어려울 때 함께해 주는 게 진짜 이웃이지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철십 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근심 걱정하며 살았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천국 소망하며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항상 웃는 낯으로 부모처럼 섬겨 주십니다.”

만민복지타운에서 생활하는 강인형 할아버지(78세)가 밝은 표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4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만민복지타운이 개원 1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 부목사 신동초 목사는 ‘하늘의 시민권’(빌 3:20)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나눔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곳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케 하는 복된 나눔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새렘악선교단과 열정팀, 김진희 권사의 축하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축사를 담당한 사회복지법인 한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미용인선교회,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여성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지난 17년간 만민복지타운을 방문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길 한창섭 대표이사는 “하늘나라 연이 수준급이었다.”라고 극찬했다. 돼 스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던 자신을 교회 차량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거쳐까지 마

련해 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주님 사랑을 깨우쳤다고 한다. 이후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는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에서는 매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생활보조비 및 쌀과 말반찬, 생필품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조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혼례 및 장례 절차를 돕고 있으며, 미용인선교회에서는 매월 만민복지타운과 무지개뜨는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한 아이용 봉사하고 있다.

또한 교정복지선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와 행사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농아인선교회, 주사랑선교회(새터민들의 모임), 군선교회 등을 통해 널리 주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 청년선교회 헌신예배

지난 4월 28일,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주일 저녁예배 시 청년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헌신자들의 특송 후(사진), 이날 강사로 선 담임 정명호 목사는 ‘내게 가장 귀한 것’(빌3:8)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다해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 예배를 전 회원은 금식과 기도로 정성껏 준비했다.

『천국』, 『지옥』 이재록 목사 저서 해외 출판 유통 활발

이재록 목사의 저서 『천국』과 『지옥』이 한글판 발간 이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비롯 우크라이나 뉴앤베스트 서점, 싱가포르 헬몬 서점, 인도 오엠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미국 크리에이션 하우스, 인도네시아 앤디 출판사, 인도 워드오브크라이스트, 대만 천은 출판사, 말레이시아 만민 출판사 등을 통해 출판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작센안할트 주 소재 코넬리우스 출판사에서 『천국』(상)이 출판돼 독일 아마존 등을 통해 시판되고 있다.

한편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아이북스토어, 아마존 킨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메시지가 다양한 언어로 널리 전해지고 있다.

포토뉴스 인도 첸나이 실업인선교회 행사에 초청받은 첸나이만민교회



지난 5월 1일, 인도 첸나이 시의 대표적 실업인선교회인 IEPF (Industrial Employee Prayer Fellowship) 창립 29주년 기념예배에 첸나이만민교회가 초청받아 담임 한정희 목사의 대표기도와 아동 율동팀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브라함의 선(2)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17~19)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순종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해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음이 선하되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순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다고 인정하시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빛'이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설령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하셨을 때도 즉시 순종합니다. 삶

의 터전과 가족, 친척을 뒤로 하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조건 떠났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함은 약속의 씨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독자 이삭에 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아내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았지요.

이는 “본토를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차원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순종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순종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미리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이 됐어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 순종부터 하면,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형통하고 순적하게 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

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면 복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내보여야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마음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빨리 해 달라고 재촉하고 자신이 바라는 때에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와 달리 선한 마음을 지닌 자녀는 잠잠히 부모를 믿고 기다리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빨리 주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먼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부모 마음을 편케 해드리지요.

이처럼 육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보다 축복이 더더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기다림의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로 이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가 참지 못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나

이 많아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롬 4:19~21).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낳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돼 무수한 믿음의 후손을 얻게 되지요.

혹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당시에는 좋아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마음이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으며 선한 마음으로 지켜 오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되 자신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허락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육과 악이 발견되는 자신을 보며 낙심해 힘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이런 내 마음과 모습으로 언제 영으로 들어가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포기하고 절망한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므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빛’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선을 본받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오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부모를 섬기는 참된 효

‘풍수지탄(風樹之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않고 자녀가 어버이를 모시고자 하나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을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분으로 그분들이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이며 참된 효도란 어떤 것일까요?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이방 여인으로서 육으로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유다 사람과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남편과 사별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어 가족을 부양할 남자가 아무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뿐이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고향 유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므로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려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것이지요. 또한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통해 깨우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17절에 그녀의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도리를 다하고자 한 룻의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풍습대로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사람을 만나 시어머니와 복된 여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자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의 생명이 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만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으며 가정이나 일터,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하니 항상 형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를 갖추어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부모님 마음에 맞춰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참된 공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모처럼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한다면 이는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해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마음에 잘 맞추고 섬긴다 해도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 어찌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빵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 같은 태후의 위치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자신은 물론 자칫하면 백성까지 우상을 섬겨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맞춰 드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태후의 위(位)를 폐함으로써 잘못을 돌아키게 하고 백성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태후의 위를 폐했다고 해서 자녀 된 도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한 만큼 극진히 섬겼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부모님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고 사랑의 행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여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물론 세대 차이나 교육,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먼저 부모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옳다 해도 부모님 의견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더러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 준 것이 없어 공경하기 어렵다고도 하지만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 된 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이재록 목사 저서 『하나님의 법도』(주제설교 모음 십계명 편) 중에서



Thank you for your love.

2013.5.12~5.18

주요프로그램 안내!

May 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선 10-14
 - 민음의 분량 25-27
 - 생명의 씨 1-2
 - 일곱교회 14-18
 - 창세기 강해 79-83
 - 천국 43-47
 - 영단편
- GCN TV설교**
 - 육과 영 1-4 (이수진 목사)
 - 기쁘시게 하는 자 2 (이미경 목사)
 - 오중복음 5 (신동초 목사)
 -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구영 목사)
 - 'GCN TV특강'
 - 일곱교회 2-6 (빈금선 권사)
-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2, 4-6, 8
 - GCN 간증 스페셜 12-15
- 해외 성회 시리즈**
 - 필리핀연합대성회 1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2-7
 - 찬양과 경배(3) 31, 32-35, 37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병든 몸과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체렌도르지 암라 집사 (몽골만민교회)

저는 다섯 살 때부터 새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아빠는 동생들을 편애하며 늘 술에 취해 엄마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었고 상처도 쉽게 받았지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제 주관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를 몰랐던 탓에 교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주님을 멀리했지요. 그러던 중 어릴 때부터 있었던 신장염과 방광염이 심해졌습니다. 소변보기가 쉽지 않았고 때로는 피가 섞여 나왔지요. 게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 잘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B형 간염까지 걸려 고통받았으며, 결혼해 남매를 낳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힘겨운 나날이었지요.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저는 1998년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2011년 통역 업무를 하면서 전도를 받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몽골 전통 천막집인 ‘게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영어 학원을 운영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012년 6월, 교회에 초청받아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교회 아리온차 전도사님이 몽골어 「만민뉴스」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지를 읽고 몽골만민교회(담임 발저릭 푸를 선교사)를 찾아갔지요. 그곳에서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서울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버려



야 할 죄들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하나님 뜻을 깨우치게 되자 제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 후 몽골만민교회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담임 발저릭 푸를 선교사님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와 의미를 밝히 깨달을 수 있었지요.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캠핑이러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별을 보여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외칠 때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지고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동하는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갔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큰 체험을 한 저는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설교 후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지요. 그 결과 17년 된 B형 간염을 비롯해 고질적인 신장염과 방광염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의사인 남동생과 친척들은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과 선교지 「만민뉴스」를 몽골어로 번역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번역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우쳐가니 더욱 행복합니다. 참된 행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정마리아 자매 (청년선교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매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 저녁예배 후 학생들을 위해 ‘미니 은사집회’를 인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에 물들어가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의 성결을 이뤄야 한다.”라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하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학습 교재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저 역시 국악에 꿈이 있었기에 전공용 해금이 필요해서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흔쾌히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저는 그 은혜에 보답코자 열심히 공부해 용인대학교 국악과 수시에 합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2월,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침과 더불어 각혈을 했지요. 검진 결과, 폐결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지난날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온전히 끊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지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아버지 하나

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 등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됐고 감사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자 기침과 각혈이 멈추고 식사도 잘하게 됐지요.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후에는 검사 결과 결핵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완쾌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 저는 무심코 지나칠 뻔한 제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간구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7197-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전산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침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광명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